토공 광주·전남본부

유물전시관 개관

〈호남읍지〉 〈정광한 묘지함〉 〈화순·장성 명당도〉 〈해동지〉

땅속에서 캐낸 '조상의 숨결' 한눈에

호남읍지·청동 9층탑 등 29점 전시

전국 32곳서 채취한 흙도 선보여

〈청동 9층탑〉

호남 지역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광주에 들어섰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는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신사옥에 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

신사옥 1층에 30㎡ 규모로 마련된 전시관에는 '생명의 땅, 역사의 땅 - 국토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주제로 보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시대 '호남읍지' 등 29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유물은 토지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분당 토지박물관에서 기증받았다. 토지박물관은 토지 개발 과정에 출토되거나 구입한 유물을 보관·전시해왔다.

전시품들 가운데에는 '호남읍지' '청동 9층탑' '묘지석과 묘지함' '해동지' '고금도 가마구미 양안'(토지문서) '화순·장성 지역 명당도' 등 주로 호남지역 유물들이 포함돼 있다.

'호남읍지'는 조선 정조 17년(1793) 전라도 지방 48개 군현의 상세 정보를 채색으로 담은 총 11권짜리 책이다. 당시 '광주에 8천366가구에 남자 1만6천240명, 여자 1만6천441명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조선 후기 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다. 보존 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청에 보물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시대 '청동 9층탑'도 보물급이다. 북한 해주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이 탑은 균형미와 탑신의 세부 묘사가 탁월하다.

조선 후기의 팔도 지도를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지도책인 '해동지'에는 전국의 부·목·군·현의 위치와 각 지역간 거리 등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묘지석과 묘지함'은 조선시대 예조판서 정광한의 묘지에서 출토됐고, 화순·장성 지역의 명당 정보를 담은 비밀지도인 '명당도'도 흥미롭다.

조선판 '사랑과 영혼'으로 불리는 '원이 엄마 편지와 미투리'의 복제품도 전시된다.

'원이 엄마 편지'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등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연이 담겨있고 지난 1998년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택지개발지의 무덤을 이장하면서 발견됐다.

또 무등산, 해남 땅끝, 호미곶 등 국내 32개 지점에서 채취한 흙을 투명 용기에 담아 놓은 토양전시함도 눈길을 끈다..

한우석 본부장은 "흙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유물들은 토지박물관이 사들여 보관하던 것들로, 호남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관한다. 문의 062-360-314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0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사옥 1층에 문을 연 유물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유물들을 관심있게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문단 활기

문학동인회 작품집 잇따라 출간

새해 들어 이 지역 문학동인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기픈시 문학회'와 '광주·전남 향토시노래사랑회', 아동문학회 '별밭' 동인회는 최근 작품집을 잇따라 발간, 침체된 지역문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기픈시 문학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남 출신의 여성시인들의 모임으로, '남자'를 테마로 아홉 번째 작품집 '남자와 장미와 하늘'을 내놓았다.

이번 작품집에는 김규화, 백추자, 이경아, 이향아, 차옥혜, 배환봉, 함진원, 오소후, 허갑순, 윤수자 씨의 작품 각 5편씩과 함께 시작노트가 실렸다. 지난 98년에 결성된 기픈시문학회는 '집', '치마' 등 매년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작품집으로 엮어왔다.

지역 작가들의 모임체인 '광주전남 향토시노래사랑회'는 '광주전남 향토시 44인 대표 선집'(제14권)을 출간했다. 이번 작품집에는 김현승의 '가을', 김영랑의 '함박눈',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등 작고시인들의 작품을 비롯해 박용철의 '희망과 절망은', 박덕중의 '낙안 읍성에서' , 황하택의 '새해 새 아침의 노래' 등 현역시인들의 향토색 짙은 시들이 함께 실려 있다.

현직 교사들이 주축이 된 아동문학회 '별밭'동인은 스물한 번째 작품집 '깨알보다 작은, 눈곱만도 못한'을 냈다. '별밭'은 24년째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시로 표현하는 등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오고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윤삼현, 조기호 씨를 비롯해 별밭 동인 소속 작가 10명의 동시 60편이 실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은 2월 한달간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1월 열린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모습.

안숙선 명창이 들려주는 우리가락

내달 1일 진도 남도국악원

국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숙선〈사진〉 명창 초청 공연이 다음달 1일 오후 7시 진도에 위치한 국립 남도국악원 대극장에서 열린다.

안 씨는 이번 공연에서 송만갑제 춘향가와 정정렬제 춘향가를 토대로 구성된 김소희제 춘향가를 선보인다. 김소희제 춘향가의 특징은 엄정하고 호방한 음악성과 아기가지가하고 감칠맛 나는 애련한 대목이 어우러진 소리라는 점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프랑스 정부 예술문화훈장 등을 수상한 안 씨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씨의 문하생이 이선희·김유경·조용수(고수)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1-540-4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 오페라협회 오늘 출범

오페라가 한국에 소개된 지 60주년되는 뜻깊은 해에 국내 민간 오페라단을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 오페라협회'(가칭·이하 오페라협회)가 31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출범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베세토 오페라단의 강화자 단장이 회장을 맡게될 오페라협회에는 광주의 '광주오페라단'(단장 임해철 호신대 교수), '빛소리 오페라단'(단장 최덕식 광주대 교수), '강숙자 오페라 라인'(단장 강숙자 전남대교수), '전주 호남오페라단'(단장 조장남) 등 전국의 24개 오페라단이 참여한다.

협회는 성악, 합창, 무용, 연출 등 오페라와 관련된 분야의 예술인들을 회원으로 해 전국 단위의 오페라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주 찾아 뵐게요"

누리꾼이 뽑은 설연휴 거짓말 1위

누리꾼들은 설 연휴 부모·친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로 '자주 찾아 뵐게요'를 꼽았다. 야후코리아는 자사의 포털사이트에서 최근 '설 연휴 부모·친지께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천189명 참여자 중 58%인 1천275명이 이 같이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얼굴 좋아 보이세요'(14%, 301명)와 '사업(일) 잘 되고 있어요'(12%, 273명) 등 선의의 거짓말이 2, 3위로 뒤를 이었다.

"문화수도 홍보관에서 로봇 만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로봇 만들기.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옛 전남도청)이 2월에도 로봇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3일 오후 2시 홍보관 1층에서 열리는 로봇체험 행사에서는 로봇 전시회와 함께 직접 로봇을 제작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 1일과 2일에는 티셔츠 위에 무늬를 직접 그려 넣어 나만의 옷을 만들어 보는 패션 페인팅과 도자기 물레 성형 체험 행사가 열리며 1~3일까지는 소중한 체험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간도 마련된다.

홍보관은 또 9~29일까지(오후2시~5시)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었다. 톱밥으로 소품을 만드는 '목분공예체험'(화요일), '가방 만들기'(수요일), '꽃리스 만들기'(목요일), '다과접시 만들기'(금요일), '메모판 만들기'(일요일) 등을 즐길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7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해야 한다. 로봇 체험 행사는 사전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 062-230-01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